국외출장 보고서

(런던 및 브뤼셀 현대미술 경향 리서치)

1. 출장 개요

가. 출장 목적

1) 런던 및 벨기에의 현대미술 및 새로운 경향(융복합 등) 관련 리서치

2) 2021년 아르코미술관 기획전 관련 작가 리서치

나. 출장 기간 : 2019.11.29(금)-12.6(금), 8일간(7박 8일)

다. 출장 장소

○ **(런던(London))** ICA(Institution of Contemporary Art), 서펜타인 갤러리 Serpentine Gallery, 로얄 아카데미 Royal Academy, 180 the Strand, V&A, 테이트 모던 Tate Modern, 테이트 브리튼 Tate Britain, 화이트 큐브 갤러리 White Cube Gallery

○ **(브뤼셀(Brussel))** 샹탈 애커만 재단 Chantal Akerman Foundation, 윌스 현대미술관 Wiels, 로프트 Loft, 보고시안 재단 Villa Empain(Boghossian Foundation)

라. 출장 인원 : 2명

	소속	직급	성명	성별	담당업무
출장자	예술공간운영본부	일3	송ㅇㅇ	남	ㅇ 4차산업 등 새로운 경향의 예술 사례 조사 ㅇ 미술관, 인미공 관련 기관 리서치
	미술관운영부	일4	정ㅇㅇ	여	ㅇ 미술관, 인미공 관련 기관 리서치 ㅇ 프로그램 사례 및 기관 간 교류방안 모색
	미술관운영부	일II6	차ㅇㅇ	여	ㅇ 미술관, 인미공 관련 기관 리서치 ㅇ 프로그램 사례 및 기관 교류방안 모색

2. 출장 일정

일자	장소	주요 일정	
11월 29일(금)	인천-런던	ㅇ 인천출발 ㅇ 런던도착(18:00)	
11월 30일(토)	런던	ㅇ ICA, Serpentine, V&A	
		ㅇ 런던도착(18:00) ㅇ Serpentine	차ㅇㅇ 합류
12월 1일(일)	런던	ㅇ British Museum, ICA,180 the Strand, Royal Academy, White Cube Gallery	
12월 2일(월)	런던	ㅇ Tate Modern, Tate Britain, 신미경 작가 미팅	
12월 3일(화)	런던-브뤼셀	ㅇ 브뤼셀 이동(유로스타 8:55am~12:05pm) ㅇ Chantal Akerman Foundation 방문 (3pm, 재단 관계자(Jean-Paul Dorchain 미팅) ㅇ ArtLoft LeeBauwens 갤러리(5pm, 유럽연합 STATRS 담당 Ralph Dum(EU Directorate-General Connect) 미팅)	

일자	장소	주요 일정
12월 4일(수)	브뤼셀	○ 유럽연합 Culture 분과 Monica Urian 미팅(10:30am) ○ Wiels 방문 (12:30pm, Dirk Snauwaert 관장 미팅) ○ Loft 방문 (14:30pm) ○ Villa Empain(Boghossian Foundaion) 방문
12월 5일(목)	브뤼셀 -런던	○ 복귀 준비 ○ 브뤼셀 미디역-공항 이동 ○ 런던 이동(BA항공 16:40pm~16:55pm)) ○ 출국(아시아나항공 20:10pm 출발)
12월 6일(금)	런던 -인천	○ 인천도착(16:05pm)

3. 업무 수행 내용

가. 런던 주요 기관 방문 및 전시 관람, 리서치

1) ICA(Institution of Contemporary Art)

<'허니 서클 컴퍼니' 전시 광경>

- **(소개)** 런던 트라팔가 광장 옆 '더 몰'에 위치한 ICA는 1946년 개관 이래 동시대성의 모든 예술을 탐구하는 연구소로 박물관과 미술관의 정형화된 형태를 벗어나 전시 뿐 아니라 토크, 라이브아츠, 영화상영, 교육프로그램 등 다학제적 콘텐츠를 선보이는 대표적 현대미술관이다.
- **(전시 및 리서치 결과)** 전시 Omnibus는 ICA 1,2층 총 5섹션으로 구분된 콜렉티브 전시로,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Honey-Suckle Company의 25년간의 작업을 총 망라한 전시이다. 1994년 설립된 아트 콜렉티브는 패션, 음악, 예술 분야를 접목하여 의복, 오브제, 도구, 영화, 출판물, 공연 등을 총 망라하는 공동체적 방법론을 전시형태로 제시하며, 바우하우스와 20세기 초 러시아 아방가르드 스타일의 전위적 방식을 차용한 자체 제작 놀이 기구, 신체 장식 등의 독창적 구조물을 선보인다. 전시는 그들의 활동을 조명하기 위해 최근 신작부터 아카이브 영상, 도큐멘테이션 사진을 비롯하여, 공간 점유형 설치를 하나의 작업으로 제시하여 전시 초입부터 시선을 압도한다. **ICA는 융합형, 다학제형 전시를 지향하는 현대미술관으로 전시로 선보이는 작가/기획 역시 실험성을 담보한 경우가 많으며, 신진, 중견 등 특정 세대와 회화, 영상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독창적 작업에 집중하고 양질의 전시를 선별하는 특색 있는 미술관으로서 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2) 서펜타인 갤러리 Serpentine Gallery

<‘패트릭 스태프’ 전시 광경>

- **(소개)** 서펜타인 갤러리는 런던 중심가에서 신진 작가와 중견 작가 전시를 기획하는 선도적인 예술 기관으로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가 아티스틱 디렉터로 재직중이다. 1970년 문을 연 이후로 현대미술갤러리로 입지를 굳혀오며 최근 자하하디드가 디자인한 Serpentine Sackler Gallery까지 그 공간을 확장하였다. 특히 공원에 위치한 갤러리는 야외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지속해왔으며 최근 예술, 건축, 디자인, 패션, 디지털에 걸친 학제간 협력 작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전시 및 리서치 결과)** LA와 London에서 활동하는 패트릭 스태프Patrick Staff의 커미션 작업으로, 대규모 장소 특정 설치작업을 선보인다. 자본주의와 사회규율이 오늘날 우리 몸의 구조와 정체성을 통제하며 가한 폭력성을 영상 및 설치 작업으로 보여주는데, 갤러리를 점유한 노란 조명과 바닥의 거울은 화학적으로 변형된 공간을 만들고, 갤러리 천장에 매달린 배관망은 원료를 알 수 없는 합성 액체를 강철 통에 누출하여 불안함을 부추긴다. 또한 신문의 헤드라인이 강판에 인쇄되고, 언론이 조장하는 사회적, 성적 규범을 강화하는 방식이 가한 불안이 영상안에서 잔인하고 가학적 푸티지로 대변된다. 신체, 생태계, 동성애적 관점에 대한 오랜 리서치를 바탕으로 인간 주체의 경계와 제도적 공간에 합법화된 신체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동시대 시각예술의 확장된 형식과 민감한 사회적 이슈와 현상을 주제로 다뤄, 동시대 담론이 예술과 만나는 지점에서의 다학제적 접근과, 공간과 작품을 하나로 연동시키는 전시방법론의 하나의 긍정적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3) 180 스트랜드 180 the strand

<‘아더 스페이시스’ 전시 광경>

<카페테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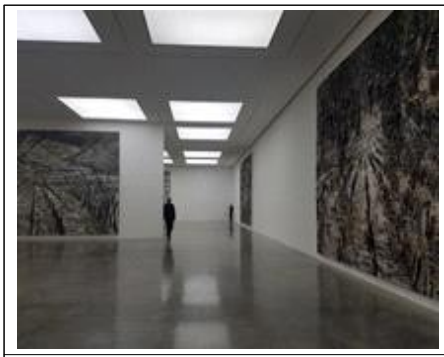
- **(소개)** 180 스트랜드는 인간과 기술발달의 진보를 향한 창조적 중심지로 변모하기 위해 런던 내 상징적 브루탈리즘 건물을 표방한다. 창조적 문화를 형성하고, 전시, 교육, 지역 사회와의 사회적 기능을 하는 공간의 역할에 주목하여, 기업가, 창작자, 문화연구자 등을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최근 실험적 전시/행사를 하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 **(전시 및 리서치 결과)** 전시 Other Spaces는 전시라기보다 관객 참여형 이벤트에 가깝다. 다학제 집단 UVA가 선보이는 세 개의 대규모 설치작업은 각각 Our Time, The Great Animal Orchestra, Vanishing Point라는 소주제로 제시된다. 주로 빛과 소리를 활용하여 기술과 예술의 융합형 전시를 표방하는 이번 전시는 유명 패션 브랜드 까르티에 재단과 공동 주최한 것으로, 첫 번째 Our Time은 빛과 소리가 점유한 공간에 관객을 몰아넣고 조명의 흔들림에 따라 변화는 빛의 움직임이 참여자의 신체와 교감하는 방식을 다룬다. 두 번째 Vanishing Point는 원근법을 몰입적인 레이저로 구현한 설치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뒤러의 르네상스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멸 지점에 대한 백색 광선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The Great Animal Orchestra는 전세계 자연 서식지에서 포착된 동물들 울음소리의 음역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사운드 스케이프이다. **과학, 시각예술, 생물학, 음향학 등 방대한 학제간 융합방식이 그 결과물에 있어 기존에 선보여왔던 익숙한 감각유도와 체험 영역에 머물며 1차원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4) 영국 왕립미술학교 Royal Academy

<‘안토니 곰리’ 전시 광경>

- **(전시 및 리서치 결과)** 2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왕립미술학교인 로얄아카데미에서 선보인 전시는 그동안 강철을 이용한 거대 인물 조각상 Angel of North 로 유명한 영국의 대표적 조각가 안토니 곰리의 개인전이다. 전시는 45년간 그의 주요 설치작업을 망라하는 동시에 전시장 규모 및 구조에 맞춰 새롭게 구현한 장소특정 작업들이 주를 이루었다. 특기할 점은 기존의 작업들도 기존 형태의 동어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설치 방식과 관객의 체험영역을 확장하여 조각을 관람용을 넘어 관객의 신체에 대한 인식과 작품과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관람의 구조적 조건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총 13개의 주제로 그의 작업을 해제한 이번 전시는 기존의 작가의 한정적 작업 스타일과 주제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작가 집중 개인전의 모범사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중성과 실험성을 모두 지니고, 미술관의 연구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개인전은 향후 중진전 등을 기획할 때 지향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활용 가능하다.**

5) 화이트 큐브 갤러리 White Cube Gallery



<'안젤름 키퍼' 전시 광경>

- **(전시 및 리서치 결과)** 독일의 신표현주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안젤름 키퍼의 대규모 개인전으로, 버몬지에 위치한 화이트 큐브의 공간 총 5개의 전시장에 17점의 대규모 페인팅을 선보였다. 그 스케일이 9미터에 버금가는 작업도 있고, 대부분 올해 신작이거나 작년부터 진행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수학, 과학의 초끈이론을 모델로 우주와 물질의 형태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페인팅에 접목한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로부터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원칙들을 가져와 과학이론이 고대 신화의 주제와 연결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스펙터클함과 대중성을 지닌 이번 전시는 공간이 작업을 분리시켜 몰입을 증대시키는 대표적 화이트큐브 전시의 성공적 사례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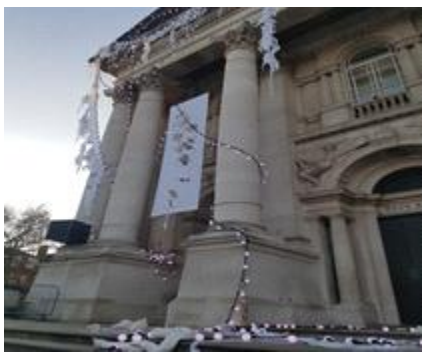
6) 테이트 모던 Tate Modern

<'백남준' 전시 광경>

<'올라퍼 엘리아슨' 전 광경> <'올라퍼 엘리아슨' 키친> <전시 연계 아카이브>

- **(백남준전 리서치 결과)** 테이트 모던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술관이 협력한 백남준 회고전은 TV모니터 활용 미디어아티스트로서 대표 작품을 비롯하여, 세계최초 통신망활용 퍼포먼스 등 굵직한 주요 작품세계 뿐 아니라 **음악을 전공했던 음악가로서 존 케이지, 샬롯 무어만과 함께 한 협업, 요셉 보이스 등 전위예술가와의 협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가로서의 동시대 예술에 나타나는 협업활동, 다원예술, 다학제예술이 구현한 실험성과 융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비디오아트 창시자'로서 그를 신화화하지 않고,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예술영역의 경계를 확장했던 그의 작업세계가 지닌 동시대성을 엿보기에 충분한 짜임새 있는 구조였다. 특히 비디오설치 작품 등 특정 작업군만을 집중 조명하여 스펙터클과 인기에 영합하기보다 오히려 내실에 충실한 아카이브전시의 면모를 보여주며 기본에 충실한 전시였다**는 인상을 받았다.
- **(올라퍼 엘리아슨전 리서치 결과)** 덴마크 작가 올라퍼 엘리아슨은 빛과 오브제 설치를 이용해 공간을 점유하는 대규모 작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개인전에서는 특히 작업의 근간을 이루는 다학제 연구에서 비롯된 그의 주요 리서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구성, 특히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를 통행 전시를 보다 다층적으로 그 심도를 만들었다. 특히 연계행사로 준비한 올라퍼 엘리아슨 키친은 유기농 채식, 특별 레시피로 만든 음식을 관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천적 전시 형태의 동시대 경향을 반영하며 전시 경험을 배가시킨다. **기존의 복잡한 기하학, 움직임, 색이론, 빛이론 등을 토대로 개별 요소들이 관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영역에 머물렀던 반면 이번 전시는 보다 그가 지닌 사회와 환경과의 깊은 관계, 관심, 기후변화, 건축 등 동시대 당면한 여러 현상과 이슈에 무엇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술가로 집중 조명하여 개인전의 성공적 사례로 활용할 만하다.**

7) 테이트 브리튼 Tate Britain



<'앤느 하디' 윈터 커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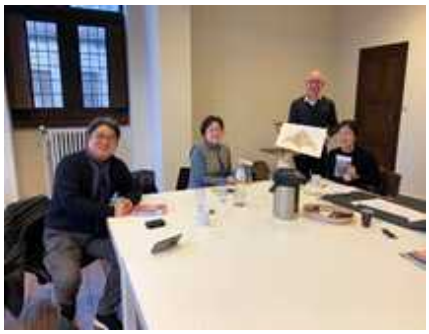
<'마크 레키' 전시 광경>

- **(소개)** 테이트브리튼은 주로 17세기 이후의 영국 회화, 인상파(인상주의미술) 이후의 유럽 회화, 현대 조각 등을 중점으로 수집하였고, 특히 J.M.W. 터너, W.블레이크 등 모더니즘 회화 수집에 주력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매체를 다루며, 동시대 시각예술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 **(전시 및 리서치 결과)** 터너 프라이즈 수상자 마크 레키Mark Leckey의 이번 개인전은 연극적 공간과 사운드, 구작과 신작이 연동된 영상 작업을 선보였다. 그가 자란 영국의 고속도로 다리의 실물 복제본을 전시장으로 옮겨와 사운드를 장착하여 선보인 이번 전시는 공간과 작업

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의 관람환경을 작품으로 전유하는 개성있는 전시 방법론을 구사한다. 또한 주목받는 현대미술가로서 신진 작가에게 할애한 개인전의 규모가 인상적이다. 한편 **테이트 브리튼이 대체로 동시대성과 거리가 먼 콜렉션 위주의 전시 공간이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상쇄하고 미술관 입구에 설치된 앤느 하디Anne Hardy의 윈터 커미션은 대규모 조각 작품으로 알려진 그의 작업이 외부 환경과 결합하여 주변의 소리와 천둥소리, 지구, 환경, 조수 등 자연의 흐름과 연동한 장소특정 작업을 보여준다. 권위 있는 미술관 외벽과 허름한 천, 강렬한 소리로 전해지는 무질서함이 대조를 이루며 미술관이 지향하는 바를 암시한다.**

나. 브뤼셀 유럽연합 관계자 면담 및 주요 예술 기관 방문

1) 샹탈 애커만 재단 Chantal Akerman Foundation

		
<샹탈애커만 재단 Jean-Paul Dorchain 미팅>	<샹탈애커만 아카이브실>	<샹탈애커만 재단 외부>

- **(소개)** 샹탈애커만은 벨기에 출신 여성감독으로 한국에는 페미니스트 아방가르트 필름 디렉터로 잘 알려져있고, 대표작으로는 1975년의 잔느 딜망이 있다. 시카고국제영화제 작품상, 카를로비바리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언급상, 베를린국제영화제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영화감독 뿐 아니라 시각예술가로서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를 비롯한 많은 전시에 초청된 바 있다.
- **(방문 개요)**
  - ㅇ 방문목적 : 샹탈 애커만의 방대한 자료를 보유한 재단 협지 답사를 통해 향후 국내에 전시 형태로 소개할 경우 가능한 콘텐츠 확인 및 협의 지점 모색
  - ㅇ 방문결과
    1) 재단 관할 자료로 대표적인 필름은 주로 애커만의 초기 70년대 작업에 머물고 있었으며, 디지털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였음, **현재로선 디지털화의 종료시점을 확답할 수 없어 자료 수급이 어려운 상태임**
    2) 특히 프라이빗한 자료는 거의 없고 대부분 컨트랙트, 스크립트, 사진, 포스터 등의 이미지가 있었으며 이들은 전시를 진행할 경우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3) **영화 상영이 아니라 전시를 추진할 경우 운송비 등은 절감할 수 있으나, 개별 기관 및 콜렉터들에게 흩어져있는 방대한 자료를 수급하는 데 저작료 등 많은 비용과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4) 특히 **프랑스 파리의 마리앤굿맨갤러리측에 전시 설치의 협의사항 및 저작권이 있음을 확인하여 전시 진행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음**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전시를 진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운송 및 제작비 절감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 검토여지가 있음**

2) 유럽연합 STARTS 프로그램 관계자 면담

<STARTS 웹페이지>	<STARTS 레지던시 소개 >	<EU 문화분과 Monica Urian 미팅>

- **(소개)** Science, Technology, The Arts의 줄임말인 스타츠(S+T+ARTS)는 유럽연합 커미션으로 과학기술과 예술 사이에 다리 역할을 구축한다. 즉 예술가, 연구원, 기술자 간의 협력을 통해 서로 영역의 개방으로 이어져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창출한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스타츠 프라이즈, 스타츠 레지던시, 스타츠 라잇하우스 파일럿, 스타츠 아카데미**를 기획하고 있으며, 과학자들, 엔지니어들, 예술가들, 연구실들, 예술단체들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반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특정 과학 또는 예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개인과 조직을 구축하고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이다.

● 스타츠 레지던시 STARTS RESIDENCIES

VERTIGO STARTS RESIDENCIES는 테크 프로젝트(Tech Project)내에 45명의 예술가을 운영 및 후원, 관찰한다. 선정된 예술가들은 예술적 실험을 통해 독창적인 시각을 옮김으로써 테크 프로젝트 연구의 혁신적인 측면에 기여한다. 이러한 실험은 자연스럽게 혁신의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사용 사례를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트 기술에 기초한 독창적인 예술작품으로 이어진다.

기간: 2016년 11월 - 2020년 5월

협력: INOVA(포르투갈), E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스위스), FRENCH TECH GRANDE PROVENCE(프랑스), LIBELIUM(스페인), FRAUNHOFER(독일), ARTSHARE(포르투갈)

● 스타츠 프라이즈 STARTS PRIZE

2016년부터 시작한 STARTS PRIZE는 예술을 통해 일반 대중들 사이에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기술을 전파하고 혁신적인 과정을 촉발시키는 촉매의 역할을 수행한 이에게 수상된다. 매년 STARTS PRIZE는 혁신의 새로운 경로를 위한 예술가와 산업 간의 협업과 기술의 사용, 전개 및 인식의 변모하는 기술의 예술적 탐사에 가시성을 제공한다.

기간: 매년 9월

협력: BOZAR(벨기에), WAAG(네덜란드)

● 스타츠 라잇하우스 STARTS LIGHTHOUSES

STARTS Lighthouse는 예술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과 사회의 주요 도전에 대한 획기적 새로운 기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를 지원한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Wear Sustain, Re-Fream과 Mindspaces이다. 그 중에서, Wear Sustain은 보다 윤리적이고 비판적이며 미학적이며 궁극적인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지속 가능한 착용기기와 전자 섬유(e-textiles)의 진화를 향한 움직임을 주도해 왔다. WEAR Sustain의 목표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과 기술을 연구하고 예술가, 설계자, 기술자 및 엔지니어 간의 협력과 혁신을 위해 유럽 전역의 착용 가능 기술, 스마트 및 전자 섬유 네트워크를 활성화, 자극 및 성장시키는 모범 사례를 개발하는 것이다.

기간: 2017년 1월 - 2019년 4월

협력: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영국), BLUMINE(이탈리아), DATASCOUTS(벨기에), UNIVERSITY OF THE CREATIVE ARTS(영국), BERLIN UNIVERSITY OF THE ARTS(독일), DIGITAL SPACES LIVING LAB(불가리아)

● 스타츠 아카데미 STARTS ACADEMY

STARTS ACADEMY는 모든 교육 수준에서 예술과 기술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과학 기술 전문가와 예술가들을 통합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쉽게 가르치며,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회의 결과)**

○ 유럽연합EU 문화분과 모니카 유리언Monica Urian, 혁신 및 실험 담당분과장 Ralph Dum 미팅

- 현재 유럽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STARTS는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교류하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PAMS와 연계하여 퍼포먼스 아트, 건축, 음악 분야 예술가들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ex. 잔다리 페스타, 조민석 건축가, SPAF의 Elephant Laughs 등)
- **관련 업무협약은 2019년 종료 예정, 2020년 5월경 브뤼셀에서 콘텐츠진흥원 관계자들과 EU담당자와 미팅을 통해 다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규 프로그램 기획 예정임**
- **지금까지는 주로 공연, 음악, 무용 등의 예술 장르에 국한하여 진행된 프로그램이 많고, 시각분야는 향후 신규 개발 가능**함, 지금까지 협력이 어려웠던 이유는 한국측 사업 담당자의 잦은 부서 이동과 응답 보류 때문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될 필요 있음
- **2020년 5월 아르코 측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함**

3) 윌스 현대미술관 Wiels

<기획 전시 광경>	<카페테리아 및 로비 광경>	<Dirk Snauwaert 관장 미팅>

<윌스 미술관 외관>	<윌스 사인물>	<윌스 레지던시 사인물>

- **(소개)** 윌스는 소장품을 수집하지 않는 대안 공간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며, 본국 출신과 국제적 작가의 전시를 기획,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07년 설립되어 올해 12년을 맞이하며 총 65번의 전시 개최와 130여 명의 입주 작가의 창작을 지원했다. 또한, 타겟층별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가족 단위 프로그램과 개별 워크숍을 진행하며, 특히 지역 사회와 협력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전시 및 리서치 결과)** 단체전 Open Skies는 투명성transparency을 소재로, 사회, 문화현상에 나타나는 투명성이 개인의 공적, 사적 공간에 나타나는 방식을 예술로 구현하는 7인의 작업을 소개한다. 한병철의 '투명사회'에 나타난 신비함, 그림자, 뉘앙스가 저항의 형태로 대변된 바, 이를 접목하여 7인의 예술가들은 코드, 마스크, 프로젝션, 판타지, 대중문화와 기술, 언어들의 교차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모호한 놀이를 작업으로 구현한다. 한편 개인전은 멕시코 작가 가브리엘 쿠리의 전시로, 종이, 플라스틱, 금속, 건축 재료 등 네 가지 범주로 그의 작업을 구별하여 이질적인 대상과 요소들을 조립하고 재조립하여 무형의 정보 흐름을 재치 있게 구현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초현실주의 몽타주 이론을 접목한 그의 작업은 60점이 넘는 작업을 선보여, 상업적, 문화적 가치, 물질주의, 소비중심주의 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재료의 혼합을 통한 위트와 조소적 태도를 표출한다. 한편 테라스와 레지던시 공간으로 구분된 윌스는 단정한 화이트큐브 형태의 공간과 높은 천고로 실험적, 개념적, 조형적 작업들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뉴트럴한 공간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한때 맥주 공장이었던 흔적을 건물 한켠에 지닌채, 커뮤니티존, 아카이브 공간, 북샵, 카페 등 미술관의 기본적 커뮤널 공간과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브뤼셀의 대표적 현대미술관의 입지를 굳힌다. 특히 개인전과 기획전의 적절한 안배와 쾌적한 레지던시 공간이 인상적이다.
- **(회의 결과)**

○ Wiels 관장 Dirk Snauwaert 과의 미팅

- 레지던시 : **한국의 레지던시 기능 및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지녀 향후 아르코 신규 레지던시 장소 발굴에 참고할 좋은 사례라고 판단됨.** 10여년동안 레지던시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내년 한국의 금천예술공장과 교류 예정임, 주요 특징으로는 **1) 6개월 간 11명의 작가들 중에서 국내작가 2명, 브뤼셀에 거주하는 해외작가 9명으로 구성됨 2) 매주 멘토와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멘토는 큐레이터나 평론가가 아니라 동료 혹은 선후배 아티스트로 구성됨 3) 입주 조건에 나이제한은 없으며, 시각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 예술가 참여 가능 4) 오픈스튜디오가 별도로 없으며, 외부 관계자가 방문을 원할 경우 언제든 방문이 가능**함, 독일의 베타니엔 스튜디오와 지향하는 지점이 비슷함
- 미술관 : 전시 프로그램에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국제 교류전은 없음, 전시 참여 작가는

35세~60세로 다양한 세대를 아우름, 개인전 및 주제전 1년 8회 미만, **교육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위주**이며, 동시대 시각문화 흐름을 반영한 디지털 관련 워크숍도 추진함

- **향후 미술관 연계 작가 교류 프로그램이나 큐레이터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음**

4) 더 로프트 레지던시 The Loft

<기획 전시 투어>	<세미나실 투어>	<로프트 외관>

- **(소개 및 리서치 결과)** 세계적인 콜렉터 알랭 세르베Alain Servais가 운영하는 아티스트 레지던시이자 전시공간이다. 곳곳에 그의 콜렉션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알랭은 팝아트, 디지털 아트,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예술, 환경과 종교에 대한 예술 등 콜렉션의 주제가 광범위하다. 방문당시 약 30여명의 작업이 소개된 그룹전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입주 작가 몇 명이 함께 기획한 전시는 레지던시 공간과 별도의 전시장 구분 없이 배치되어 있었다. **입주 작가들이 한국의 경기창작센터 등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작가들로, 향후 해외 신진 작가 리서치 장소로 활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5) 빌라 앙팡(보고시안 재단) Villa Empain(Foundation Bogosian)

<빌라 앙팡 외관>	<빌라 앙팡 레지던시>	<기획 전시 광경>

- **(소개 및 리서치 결과)** 1992년 아르메니아 출신의 두 아들 진과 알버트 보고시언에 의해 만들어진 보고시언 재단은 교육과 전시문화에 기여하며, 특히 아르메니아와 레바논에 사는 신진 예술가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주력한다. 더불어 벨기에, 레바논, 아르메니아에서 사회, 교육, 예술 및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고시안 재단은 2010년부터 브

뤼셀의 대표적 아르 데코 건축물인 빌라 앙팡을 개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 개최 및 레지던스를 운영한다. 특히 수영장과 주변 자연 환경과 어우러진 **레지던시 공간은 특수 환경을 활용한 작업의 가능성을 확장시켜 작가들의 레지던시 공간으로 유수한 시설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다. 출장 효과 및 출장결과 활용계획 등

가. 런던 대표적 전시 리서치 결과

- 다학제, 다원 예술 전시 구현에 있어, 리서치 결과 활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 테이트 모던, 테이트 브리튼, 서펜타인, ICA 등 굵직한 현대 미술관, 실험공간에서 선보이는 개인전들이 오히려 180 the strand처럼 융합형 행사 공간을 표방하는 장소에서의 전시보다 전시의 퀄러티나 밀도, 완성도 등에서 수준이 월등히 높았음. 특히 융합형 기획전으로 특정 주제에 중점을 두기 보다, 중견, 신진 등 개인전 비중을 높게 두고, 한 작가/콜렉티브의 작업 영역이 어떻게 동시대 시각예술문화를 선도하여 주요한 사회적 이슈들을 다학제 작품으로 승화하고 있는지 좋은 사례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특히 개인전들이 주제, 형식적으로 다학제 요소를 복합적으로 구현하기에, 전시장소의 특정성을 작품의 퀄러티와 전시 경험을 배가하는 방식으로 상호보완하는 공간구성과 작품 배치, 작품의 주제적 심도를 깊이있게 하는 다양한 아카이브 활용 등은 향후 개인전 개최시 참조할 필요 있음

나. 브뤼셀 대표적 공간 답사 및 담당자 미팅 결과

1) 아르코미술관 사업 연계 방식 모색

○ 샹탈 애커만 개인전을 개최할 경우 기관간 적극적 협력방안 모색 가능성 확보

○ 윌스 현대미술관 전시 작가 및 레지던시 작가와 향후 국제교류전 추진시 협력 방식 모색 및 초청 가능성 확보

○ 유럽연합 STARTS 프로그램 출신 작가, 향후 전시 개최시 리서치 대상 활용 가능

2) 아르코 국제교류 레지던시 신규 장소 발굴 효과

○ 윌스 현대미술관 및 로프트, 빌라 앙팡 등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기존의 패턴화된 국내 레지던시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지녀, 향후 신규 레지던시 사업 추진시 중요한 참조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융복합 사업 신규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인사미술공간 신규 사업 활용 방식 모색

○ 유럽연합 STARTS 담당자들과의 미팅으로, 향후 ARKO-EU 간 보다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조기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 2020년 인사미술공간 아트랩(다학제 예술가들의 실험 플랫폼) 운영에 있어 STARTS의 사업 리서치 및 관계자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수 있음

4. 집행예산

가. 총 집행예산 : 10,833,859원

1) 국외여비 : 9,520,557원

(단위 : 원)

성 명	총 계	항공 운임 (실비)	현지 교통비 (실비)	체재비		
				일 비	숙박비(실비)	식비
송○○	3,201,419	1,085,200	210,920	246,330	1,045,490	613,479
정○○	3,201,419	1,085,200	210,920	246,330	1,045,490	613,479
차○○	3,117,719	1,430,200	210,920	182,988	864,293	429,318
계(원)	**9,520,557**	**3,600,600**	**632,760**	**675,648**	**2,955,273**	**1,656,276**

※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제2호 가등급(런던, 5일) 및 2호 나등급(브뤼셀, 2일) 적용.
※ 브뤼셀에서 런던 이동시 프랑스 철도파업에 따라 유로스타 이용불가하여 항공편 이용. 이에 따라 현지 교통비는 감소하고 항공 운임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항공료 예산 내에서 집행됨.
※ 일비, 식비는 1달러 당 환율 1,173원 적용(11월26일)하여 사전 수령함.
※ 숙박비는 1,176.5원/1달러(11월25일) 환율 적용시 사용 가능액이 3,137,726원이나 집행시 절감하였으며 동일 숙소 사용의 편리를 위하여 출장자 전원의 출장비를 합하여 일괄 집행함.

나. 기타 출장 집행경비(일반수용비) : 814,371원(일반수용비)

○ 보험료 : 83,500원(3인)
○ 데이터사용구입 : 73,000원(출발일 상이하여 2명 신청)
○ 미술관 입장 티켓 구입비 : 57,871원
○ 벨기에 현지 통역(불어, 이○○) : 200,000원*3일 = 600,000원

다. 국내 이동비용(국내여비) : 35,300원

○ 공항버스 왕복 : 35,300원

라. 업무추진비 : 463,631원

○ 관계자 회의, 간담 등 : 463,631원

마. 예산과목

1) 국외여비
○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창작육성 / 아르코미술관기획프로그램 / 국외여비(유로스타, 숙박비)
○ 예술창작역량강화/ 국제예술교류지원/ 해외문화기관협력 / 국외여비(항공료)
○ 기금운영비 / 기관운영비 / 국외여비(일비, 식비)

2) 국내여비
○ 아르코미술관기획프로그램 / 국내여비

3) 일반수용비
○ 아르코미술관기획프로그램 / 일반수용비(데이터구입비, 통역비)

○ 무대예술전문교육 / 일반수용비(보험료, 현지 입장료). 끝.

4) 업무추진비

○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창작육성 / 아르코미술관기획프로그램 및 아르코미술관운영관리 /업무추진비. 끝.